

FORUM



MICRO TREND REPORT

Vol.3 OLDCRUSH: 힙한 옛 것

FORUM



TREND KEYWORD OLDCRUSH

힙한 옛것이 온다!

LAB.M은 매월 FORUM.M과 연계하여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밀레니얼이 주목하는 이슈와 현상을 분석하여 마이크로트렌드를 도출하고 관련된 다양한 마케팅 트렌드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익숙함 속의 새로움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다” 굉장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익숙하다]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1.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 서투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
2.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태에 있다. 인데, 이는 누가 봐도 “새롭다”와 상반되는 의미이죠.

그런데 익숙함과 새로움이 함께 공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뉴트로 (Newtro)” 입니다.

과거를 의미하는 Retro와 새로움을 의미하는 New가 합쳐진 뉴트로
누구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누구에게는 신선함과 새로움을 줍니다.

그런데, 손가락 터치 몇 번 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매일 새로운 것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사람들은 왜 굳이 “낡고 빛 바랜 옛 것” 에서 새로움을 찾는 것일까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어쩌면, 과거가 이루어놓은 것들로부터 안도감과 위로를 얻고
나보다 한발 먼저 세상에 발을 내딛고 나아가고 있는 인생 선배들로부터 “너희도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어”라는 확신을 얻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트렌드 키워드는 OLDCRUSH 입니다.

오래됨, 늙음, 과거를 뜻하는 [Old]와 반하다라는 의미의 [Crush on]을 합친 OLDCRUSH를 통해
오래된 것들에 반할 수 밖에 없게 만든 사람들과 기업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OLDCRUSH] 를 통해, 새롭고 신선한 것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아닌,
불안한 새로움과 안정된 익숙함의 사이에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익숙한 새로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CREW.M 일동 -

OLDCRUSH

FORUM



LEAD THE WAVE

3^d FORUM.M

TREND KEYWORD

옛 것, 추억과 새로움의 공존: 온라인 탑골공원, 슈가맨

- 온라인 탑골공원과 슈가맨3로 90년대 문화와 가수들이 재조명 되고 있음
- 90년대 당시 10대였던 2-30대에게는 추억을, 90년대 문화가 생소한 10-20대에게는 신선함과 새로움을 주며 화제가 됨



온라인 탑골 공원

90년대 추억을 재해석하다

- SBS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SBS KPOP Classic'은 2019년 8월 초부터 24시간 스트리밍 기술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1990~2000년대 'SBS인기가요'를 실시간 스트리밍 함
- 온라인 탑골 공원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영상과 실시간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화제가 됨

90년대 가수들이 익숙하지 않은 밀레니얼, Z세대들은 현재 배우로 활동하는 윤계상이 속한 GOD를 '장첸이 왜 거기서 나오냐'며 '장첸소년단'으로, 당시 파격적인 의상을 선보인 이정현에게는 '조선의 레이디가가', 백지영을 '구한말 청하', 러원을 '탑골 제니' 등으로 요즘 가수들에 빗대어 별명을 붙임



슈가맨

사라진 가수를 찾아 가슴 한편의 추억을 소환하다

- 12월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슈가맨3'는 대한민국 가요계에 한 시대를 풍미했다가 사라진 가수, 일명 '슈가맨'을 찾아 나서는 프로그램임
- 1,2회에 등장한 90년대 GD 양준일, 태사자는 방송 후 실검 장악 및 화제성 1위를 기록함

태사자와 양준일을 전혀 접하지 못했던 10대들은 태사자의 무대를 보며 "춤이 이상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만약 지금 이 노래가 지금 나온다면 톱 것이다'에 과반수가 긍정을 의미하는 '불'을 밝혔음 양준일의 무대를 본 사람들은 '69년생에게 덕질 할 줄이야'라는 반응 등을 보임



레트로가 아닌 힙트로: 힙스터는 곰표패딩을 입고 을지로로 간다

- 곰표 패딩과 '참이슬 백팩'이 인싸템으로 화제임. <곰표>는 시그니처 캐릭터인 '곰'을 이용한 다양한 굿즈제작으로 젊은 세대들의 꾸준한 관심을 얻음
- 낡은 인쇄골목과 종로 탑골공원으로 시니어들의 공간이었던 을지로가 '빈트로' 열풍과 함께 젊은이들의 명소가 됨

힙스터들의 인싸템: 이걸 입는다고?

곰표패딩, 참이슬 백팩, 대선 슬리퍼, 메로나 운동화...



식품업계와 패션업계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이 화제를 모으며 '인싸템'으로 떠오름
이른바 '푸드 패션'은 한정 판매되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으로 주로 개성을 중시하는 1020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곰표 패딩은 출시 당시 4만9000원이었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3만원에서 최고 25만원에 판매되고 있음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온라인 패션몰 무신사에서 선보인 400개 한정 '참이슬 백팩'은 5분 만에 완판됨

오프라인 밀레니얼 탑골공원, 힙지로로 모여라

힙트로를 넘어, 이제는 빈트로. 을지로 노가리골목으로 모이는 힙스터들

을지로는 낡은 인쇄골목에서 어느덧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떠오르며 '힙지로'로 불림

'을지로'인스타사진, 2013년 5건에서 2019년 1,705건으로..

VINTAGE 낡았다. 그래서 새롭다

뉴트로를 넘어 요새는 예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빈티지 감각'이 더해진 '빈트로'에 열광함

20년 넘는 인쇄기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내세우거나, 일본의 오래된 다방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로 빈트로 감성을 공략함

OLD & NEW 신구의 조화

을지로에서 수십년 이상 장사해오던 기존 노포인 '노가리 골목'과 '골뱅이 골목'은 젊은 세대의 명소가 됨

실제로 최근 노포에는 젊은 세대의 유입이, 신규맛집에는 40대 이상 중장년층 신규고객이 늘어나고 있음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시니어 힙스터: 모델 김칠두, 할담비 지병수

- 60대 이상의 시니어 모델이 포래의 중장년층에게는 공감, 젊은 층엔 롤모델로 주목받으면서 유통업계에서 60대 이상의 시니어모델을 활용한 마케팅이 강화됨
- 밀레니얼 및 Z세대는 시니어들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주인공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기도 함

시니어 힙스터들에 열광하다

할아버지 모델 김칠두, 할머니 유튜버 박막례, 할담비 지병수

- 모델 김칠두 씨와 시니어 유튜버 박막례씨의 경우 기존 노인의 이미지를 깬 과감한 스타일과 소통법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얻음
- “나도 저렇게 근사하고 유쾌하게 나이 먹고 싶다” 라는 생각과 공감을 끌어냄



시니어 모델 김칠두 할아버지는 국내 최초로 패션위크에 오른 시니어모델

대중에게는 KT통신사 5G광고로 얼굴을 알리며 ‘5G할아버지’ ‘한국의 간달프’ 등의 별명으로 불림



전국노래자랑에서 ‘미쳤어’를 부르는 할아버지로 화제가 된 지병수 할아버지

지난해 ‘할담비 지병수 Korea Grandpa’s crazy k-pop’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삼시간에 1만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출처: DongA.com

“옛날 사람”이라니! 우리도 요즘을 함께 살아가는 “요즘사람”이야

인싸들의 프랑스 건배사 “마송, 드송!” (Feat. 조세호 아버지)

- 유퀴즈온더블럭에서 조세호가 소개한 조세호 아버지의 프랑스식 건배사는 인싸들이 하는 건배사로 화제가 됨
- “나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요즘 사람이다”라는 조세호 아버지의 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음



저희 아버지가 얼마전에 진지하게 프랑스식 건배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내가 마송! 하면 여러분들은 드송~”

조세호가 아버지에게 요즘 유행하는 줄임말을 모른다는 이유로 “옛날사람” 이라고 하자, 조세호 아버지는 자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줄임말을 모르는 조세호에게 “우리도 지금 현재 함께 살아가고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유행하는 것도 요즘 유행하는 건데, 왜 젊은이들의 유행만 요즘 유행이라고 하느냐, 우리도 요즘 사람이다” 라고 말한 에피소드를 소개함

출처: TVN 유퀴즈온더블럭

옛 것, 추억과 새로움의 공존
레트로가 아닌 힙트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시니어 힙스터



트렌드 키워드

OLDCRUSH
힙한 옛 것이 온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새로움”과 “Hip”을 추구한다

오래전의 것이라 해서, 나이 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하지 않는다

그들은 새롭고 힙하다면 기꺼이 수용하고 더 나아가 그들만의 문화로 재생산한다.

옛 것이라 오히려 더 신선하고, 이상해서 재미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OLDCRUSH:힙한 옛 것]을 이달의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함



LEAD THE WAVE

3rd FORUM.M

TREND CONTENT

해당자료는 미리보기로 총 30페이지 중
9페이지만 제공합니다.

전체본은 FORUM.M 기업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FORUM.M

강연! 맥주 한 잔 하며, 편안하고 즐겁게 즐기자!

‘**밀레니얼 모멘트(millennial moment)**’가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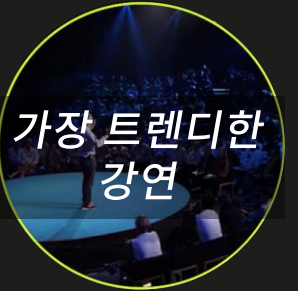
1981~96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들은 베이비붐 세대(46~64년생)와 X세대(65~80년생) 이후 새로운 경제·사회적 세력으로 등장하여, 미래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MA 한국능률협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주역이자 산업을 견인해 나갈 밀레니얼 세대가 마케팅 이슈, 트렌드, 최신 콘텐츠를 학습하여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2030세대 밀레니얼 직장인을 대상으로 **FORUM.M**을 운영합니다.

FORUM.M은 LAB.M과 연계하여 매월 마이크로 트렌드를 발굴하고, 이를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는 강연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트렌디한 이슈에 민감한 마케터, 전략·기획, 홍보 등 동일 직무의 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발굴한 트렌드를 바탕으로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 및 배포합니다.

우리만의 공간에서 우리를 위한 포럼인 FORUM.M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CREW.M 일동



FORUM



LEAD THE WAVE

Published by. CREW. M

문의 | 박경만 디렉터 : kpark@kma.or.kr / 02-3274-9361
| 이지향 콘텐츠 매니저 : nicejh@kma.or.kr / 02-3274-9255
| 박아름 마케팅 매니저 : ar7173@kma.or.kr / 02-3274-9250

KmA